

절대 제자들의 공통점

창세기 45:1-5, 로마서 16:1-7

정운돈 목사님

요약

서론 : 성경에 나타난 절대 제자들의 모습

본론 : 절대 제자의 공통점 두 가지

1. 소명을 이해하고, 사명을 알고 감당하며, 천명에 순종하는 자
2.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만날 때 회개하고 갱신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하는 자

결론 : 절대 제자가 되기 위한 실천 - 말씀의 흐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다.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비난의 글이 올라온다. 기독교 관련 내용이 뜨면 바로 비난 이야기가 인터넷에 쏟아진다.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분명히 부모님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거나, 목사 장로 자녀일 것이다.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상치입고 그만둔 사람일 것이다.' 내용을 보면 기독교를 잘 하는데,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를 제대로 개혁시키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많은 어려움을 주셨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셨다. 특별한 단체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시대를 다시 개혁하고 갱신하고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셨다.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 되시기를 축원한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불만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불가능하다 하는 순간에도, 절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믿음을 붙잡았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다. 지금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많다. 지금 땅굴이 있냐 없냐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동성에 인정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가 거기에 힘을 쓸 시간이 없다. 절대제자가 되어서 말씀운동을 해야 한다. 여러분이 양육하는 어린 램넛트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까지 어르고 달래고 찾아가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신자로 살 것인가? 이 모습으로는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릴 수 없다. 절대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 모습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내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램넛트가 보게 되어 있다.

서론 : 성경 속의 절대 제자들

(1) 구약시대의 절대 제자들

노아를 보라.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는, 100년 동안 더 말씀하지 않으셨다. 방주를 짓는 데에 얼마나 돈이 들겠나. 일은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가. 시험당할 일이 너무 많다. 무려 100년이다. 그냥 배를 만든 게 아니다. 과정을 생각해 보라. 늙은 나이에 이것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성취시켰다. 완성시켰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집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60만 명이 흔들리더라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에 전념하는 것이다. 환경에 속으면 안 된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여기에 성공했다. 요셉은 어떤가? 나 같으면, '원수를 갚으리라.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나.' 그랬을 것 같다. 그런데 교회 안의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예수 믿는 것인가. 정말 말 십자가를 아는가. 나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장에서 한 번도 요셉처럼 빛을 발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다. 자세히 쳐다보면, 예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을 욕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를 욕한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절대제자가 되어야 한다. 전도를 막는 게 아니라 전도를 돕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준을 바로잡으면 되어진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60만 명 중 두 명이었다.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중에서도 1, 2등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한다. 신앙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준이 자기 감정이다. 돈이다. 현금이다. 부흥이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다. 기준이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기가 너무 좋은 것이다. 라합, 나오미, 룻을 보라. 절대제자였다. 다니엘은 온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에스더도 이사야도 변하지 않았다.

(2) 신약시대의 절대 제자들

신약시대에 요셉이나 마리아가 절대제자의 길을 갔다. 결혼 안 했는데 임신했다. 우리 같으면 바로 의심했을 것이다. 지금 얼마나 의심이 많은가. 우리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입장인데, 조금 비난 실제로 했다고 원수되고 빠지고 하는 것은 예수쟁이가 아니다. 예수쟁이가 되어야 한다. 바울도 많은 고통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갔다. 디모데도, 사도 요한도, 마지막까지 연약의 메시지를 붙잡았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도, 순교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 전도자의 도움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특별히 이 역할을 멋있게 감당케 되기를 바란다.

본론 : 절대제자의 공통점 두 가지

1. 소명, 사명, 천명을 이해한 자들

하나님이 절대주권과 은혜로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목사,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된 것보다 큰 응답이다.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다.

(1) 이들은 calling,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이해했다. 부르심의 의미를 이해했다. 아브라함도,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게 어머머마한 부르심 이구나. 역사에, 시대에 딱 한 번 있는 부르심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닐까? 보면,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 믿음 좋은 사람도 처음에는 몰랐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알게 된다. 요셉도 다윗도 처음에는 잘 몰랐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알게 된다.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을 알 수 있다. 그게 있어야 끝까지 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내 마음 속에 진동으로 울려와야 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 시대적인 인물들은 특별히 위기 때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가 잘 나가고 부흥하고 핍박도 없고 할 때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현장에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다

(2) 그리고 그들은 사명을 이해했다. 그때 주어진 것, 역할이다. 동역자, 보호자, 식구인, 사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를 보고 스페인을 보았다.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은 대부분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사람들이다. 마가다라방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 아시아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로마로 미리 보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도록 준비하게 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알고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분야에서 서밋이 될 것인가? 어느 분야에서 지교회, 전문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느 나라를 살릴 것인가? 마스터플랜이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3) 이것이 천명을 이해한 것이다. 대통령이, 선생님, 부모님이 명령하는 것도 실천해야 한다. 직장에서 상관이, 회장이 뭘 하라고 하면, 우리는 되든 안 되든 순종해야 하지 않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천명으로 생각하고 해야 한다. 지교회를 하자 하면 천명으로 생각해야 한다. 목사님이 야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천명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것 아닌가? 많은 성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교회 이야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된다고 한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직장에서 그런 식이면 바로 잘린다. 그렇지 않나?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기 전에, 일단 사장 정도라도 생각을 해라. 오히려 자기가 상관인 줄 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안 된다. 지시하면 해 봐야지, 안 되면 이래서 안 된다고 보고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불만, 불평, 이유 대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300지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천명을 붙잡아야 한다. 교회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광고하고 훈련 받으라 하고 무엇을 하자고 하면,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명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인물 몇 명만 나와도 교회는 달라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내 고향 목포에 성결교회가 있었다. 얼마나 싸웠는지 모른다. 장로 한 사람이 목사님 네다섯 명을 쫓아냈다. 너무 싸우니까 헌금을 파출소에 가서 계수할 정도였다. 파출소장님이 걱정돼서 전화하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든든하게 부흥하고 있다. 왜냐?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면 왜 그랬나? 몇몇 권사님이 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신경도 안 쓰고 기도한다.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웃음) 문제 있잖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무슨 일만 있으면 열을 받고 빠지고 하는 수준이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겠는가. 어떻게 선교 현장을 살리겠나.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안 되면 사랑으로 인내로 어떻게 이기겠는가. 체질까지도 재창조되고, 그리스도의 체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재창조되어, 시대와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한다.

2. 제자의 그릇을 준비한 자들

절대 제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나 특징이 있었다. 감당하는 그릇의 특징이 무엇이었나?

(1)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충성되게 감당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매형의 어머니는 아들 여섯을 잃었다. 아브라함보다 천만 배 홀륭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은 크게 잃어버린 것도 없는데 빠지고 불신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않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라. 거듭나야 한다. 도약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절대제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여러분이 서기를 축원한다. 무엇을 잘 하라는 게 아니다.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다. 믿어라. 체질을 바꿔라.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꿔라. 그러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것이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그랬지만, 흔들린 적이 없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순교해야 했다. 내가 아는 사람은 군대에서 교회에 갔는데, 소대장이 보내주기는 했다. 그런데 다녀오니까 기합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절반으로 줄었다. 다녀와서 또 기합을 받았다. 또 절반으로 줄었다. 결국 두 명만 남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주일에는 마음껏 교회에 있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현장을 지키자. 나에게 주신 지역에서, 소명과 사명과 천명을 감당해 나가자. (2)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 실패를 안 한 게 아니다. 노아도 닦도 다 넘어졌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들도 도망도 가고, 불신양도 하고, 불순종도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었다. 깨닫고 회개했다. 닦은 눈물을 적시면서 회개했다. 감추지 마라. 우리는 허물이 많다. 왜 성장하지 않는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갱신하고 회개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회개하라. 이것은 주님 앞에 간간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나에게 필요함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3)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시대의 문제를 알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었다. 근본문제에 도전했다. 네페림 시대, 바벨탑에 도전했다. 무속, 우상, 점술, 그 현장의 영적 문제를 알고 현장을 향해 도전했다. 지난주에도 마약퇴치운동본부에 강의를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착하다. 실수로 문제에 빠진 것이다. 중독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아정체성이 없다. 자부심, 자긍심이 있어야 한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란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전도하는 척 하는 사람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현장을 녹이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결론 : 절대 제자화를 위한 실천

결론을 내리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대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믿음, 기쁨, 감사, 사랑이 항상 넘쳤다. 그러면서 도도한 말씀의 흐름에 순종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갔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상고했다. 숙제하듯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다니다.’ 그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한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듣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최고 행복의 시간으로 만들었다. 여러분도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여쭙보라. 하나님은 바로 감동을 주신다.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감동을 주신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절대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닦아가고,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